

3년간 펜만 잡은 모범생,  
이제는 환자의 맥을 잡는 한의사로!



안녕하세요!  
오늘은, 기나긴 진로 탐색 끝에, 세 번의 수능을 거쳐  
현재에는 한의사로 일하고 있는 '이경태'선배님을  
만나보았습니다!

처음 세운 목표를 포기하고, 지금의 한의사로서 성장하며  
어떻게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했는지  
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:D

**Q1. 자기소개와 현재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  
자세히 소개해주세요!**

A.

안녕하세요, 저는 세명대학교 한의학과 4학년 이경태입니다.

한의대는 예과 2년, 본과 4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 
그러니깐 저는 지금 학생만 6년째 하고 있습니다.

한의대에서 무얼 배우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. 한의사라고 하면 아직도 수염 기른 할아버지가 한복을 입고 “에헴” 기침 한 번 하고 나서 맥을

짚어줄 것 같은 **그런 선입견을 가지신 분**이 많은 것 같아요.

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의대에 오시면 사실 **크게 당황**하실 수도 있어요. **기초과학, 현대의학** 과목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거든요. 한의대에서 **해부를 한다고 하면 놀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**

**해부는 기본**이고 **생리학, 병리학 등등을 기반으로 임상 과목**에는 온갖 현대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. 다시 말해, 한의대는 **21세기 한의사를 길러내는 곳**입니다. 21세기 한의사는 수천 년의 역사가 담긴 **전통적인 의학뿐 아니라, 최신 연구 지견까지** 모두 알아야 진료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.

요즘엔 환자들이 한의원에 갈 때 **x-ray, MRI 사진, 혈액검사 결과, 심전도 검사결과** 등등을 모두 들고 가서 물어봐요. 이런 것들도 모두 대답하고 환자의 상태를 현대의학적으로, **한의학적으로 모두 파악하고 진단하여 치료**를 하는 것이 바로 요즘의 한의사입니다.

그렇다보니 학교에 다니는 6년 간은 시험의 연속입니다. 그 와중에 대학생살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곳이 바로 **한의대**입니다 ㅎㅎ



**Q2. 해당 직업을 선택하게 된**

**시기와 계기는 언제이신가요?**

A.

사실 저는 **서울대 경영학과**에 가는 것이 고등학교 3년 동안의 목표였어요. “**경영**”이라는 것이 막연히 멋있어 보였고,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전략을 짜고, **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**해서 성과를 이뤄내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았어요.

그런데 재수를 하던 시절,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. 보통 재수를 하면 **철학자가 된다고들** 하잖아요. 저도 그때 제가 **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, 제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**, 그럼 **그에 맞는 직업**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어요.

경영학과에 가더라도 경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고 **너무도 숨 가쁘게 경쟁을 하며 살아갈 것만 같았어요**. 조금은 더 **여유 있는 삶**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.

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매주 가던 **한의원 원장님**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. **직접 본인의 한의원을 경영하며, 환자들을 치료하며 얻는 보람도 클 것 같다는** 생각이 들었어요. 그때부터 목표를 **한의대**로 바꿨습니다.

### Q3.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셨나요?

A.

오직 **수능 점수를 높이는 것** 외엔 다른 준비는 할 수가 없었어요.

한의대가 있는 학교들의 특징이라면, 대부분 지방대라는 점입니다.

인서울 대학이었다면 **논술전형**이라도 준비를 했었겠지만, **지방대 특성상 수시전형은 거의 내신으로만 선발**을 했습니다. 내신이 좋지 않았던 저는 수능 점수를 올려 정시로 갈 수밖에 없었죠.

재수를 해서 실패를 했고, **한의대에 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삼수를 시작**했습니다.

그리고 세 번째 수능에서 **점수가 확 올라** 한의대 합격권이 되었죠. **한의대에 가고 싶다는 간절함 하나로**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.



◀ 실제 한의사로 실습중인 이경태 선배의 모습

**Q4. 어떤 성향을 보유한 후배에게 해당 직업을 추천하고 싶나요?**

A.

한의학에게도 여러 진로가 있습니다만, 가장 흔한 임상 의사(한의원, 한방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사)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한의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입니다. 그것도 처음 보는 환자들이 대다수죠. 때문에 **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분**은 적성에 맞을 것 같아요.

그리고 결국엔 많은 한의사가 개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(폐이닥터를 하다가도 결국엔 많은 한의사들이 본인의 한의원을 운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) 다시 말해, 개원을 하게 되면 원장이 진로뿐 아니라 **한의원의 경영, 마케팅, 회계 등등을 모두 담당하는 마스터맨**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. **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**이라면 더욱 좋겠죠?

학문적으로 바라보자면, **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**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.

앞서 말했듯 한의사는 Bilingual 한 사람입니다. **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을 넘나들며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**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뿐만 아니라, **이것저것 연구를 해보고 싶은 분들**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한의학의 효과는 무궁무진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할 부분은 아직도 매우 많습니다. 한의학의 효과를 **과학적으로 연구하여 증명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**도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그리고 이것저것 **새로운 일을 좋아하는 분들**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분들이 한

의사가 된다면 임상의로 가득한 **한 의사 사회에 다양함을 불어 넣어**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**Q5.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해, 어떤 단계로 준비하면 좋을까요?**

A.

학교 공부, 수능 공부 외엔 따로 준비할 것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.

대신 준비하는 과정이 체계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수능 공부를 할 때도 무작정 많이 풀기보다는 과목별로 **얼만큼의 양을 풀 것**인지 정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**효율적**일 것입니다.

저 같은 경우도 공부할 양이 많다 보니 하루에 **모든 과목을 공부**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. 특히 중점적으로 공부한 과목은 수학과 영어였고 **두 과목 위주로 시간표**를 짰습니다.

하지만 수능 같은 경우는 **모든 과목을 준비**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**수학, 영어 중심의 시간표**였지만 중간중간에 **나머지 과목을 넣어서 시간표를 계획**한게 지금 생각해보니 좋았던 것 같습니다.

모의고사는 **푸는 것보다 틀린 문제의 오답을 하는 것**을 중요시했으며 실제 수능 **2주 전부터는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**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본 것이 수능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,

마지막으로 한의대에 진학하여 **다양한 일**을 해보겠다, **다양한 경험**을 해보겠다, **다양한 공부**를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


## Q5. 해당 직업을 준비하는

고등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?

A.

누구나 할 수 있어요.

처음에 **실패**를 겪었다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 
좌절보다는 **꿈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계기**로 생각하세요. 물론 말처럼  
쉽지는 않겠지만, 좌절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.  
**얼마나 빨리 딛고 일어서느냐**가 중요해요.

저도 **2번의 실패**를 겪고 딛고 일어서서 지금 한의대까지 왔습니다.  
**불가능이란 말은 없어요.** 불가능이란 **자신이 정해놓은 한계**라고 생각해요.  
극복할 수 있기에 나온 말이에요. 저 말고 **모든 사람이 극복하는 게 가능**해요.

한창 고민이 많고 힘들 시기일텐데 불가능이라 여기지 말고,  
**여러분의 힘으로 극복**해서 원하는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.  
처음에 잘되면 좋겠지만 **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거예요.**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 
것처럼 **딛고 일어서서 극복**하면 여러분의 **인생에 아주큰 도움**이 될거예요.

제가 느껴본 한의사라는 직업, **정말 좋은 직업**입니다.  
여러분들도 나중에 함께 **한의학의 발전**을 위해 힘써봤으면 좋겠습니다.

